

시공간 속 공정의 뒤틀림, 세종청사 어느 날의 기록

아이뉴스 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세종청사
NICE SEONG

2021
기자의 세상보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제공=아이뉴스24]

세종청사의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2021년 4월16일 금요일은 나에게 잊히지 않는 날이 될 것 같다. 이날도 오전 마감 을 끝내고 점심을 먹은 뒤 세종청사 환경 부 앞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다. 일주 일의 끝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 는 버스를 타는 일이다. 일주일 업무를 끝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행복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나는 세종청사에 주재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

회,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고 있다. 4월 의 푸른 기운이 이제 막 고개를 내밀고 있 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세종청사 공간 도 함께 울리고 있었다. 봄이란 시간이 세 종청사 공간의 틈 속으로 들어와 서로 ‘떨 리고 울리는’ 순간이었다. 길가에 이름 모 를 크고 작은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계절이었다. 불어오는 바람에 하늘하늘 흔 들리면서 걸어가는 이들을 유혹했다.

금요일은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다.

부처별로 나오는 자료도 많지 않았다. 금요일 세종청사 버스 정류장은 저마다 집으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는 시공간이었다. 설 새 없이 버스가 정차했고 한가득 세종청사 사람을 싣고 전국 곳곳으로 흩어졌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정류장에 한 움큼 세종청사 사람이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올 것이었다. 나도 그렇다.

버스를 타기 몇 분 전, 메시지가 왔음을 알리는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직감적으로 뭔가 긴급하다는 느낌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똑같은 메시지 알람인데도 어느 순간 ‘아! 이거 또 총 맞았구나(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 등)’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신기한 일이다. 축일까. 오랜 경험상 나도 모르게 몸으로 흡수해 버린 설명할 수 없는 펄림과 울림 때문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명자에 임혜숙!”

청와대가 이날 몇몇 부처에 대한 개각에 나설 것이란 예고는 있었다. 회사 선배가 보낸 메시지에는 ‘임혜숙!’에 강조점이 표시돼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기영 장관 유임이란 흐름이 강했다. 개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 뜬금없이 ‘임혜숙’이란 이름이 휴대폰 메시지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었다.

‘임혜숙? 그 임혜숙을 말하는 건가?’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임혜숙 후보자가 지난 5월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임 후보자 자녀 해외 동반 출장 등 ‘공정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사진제공=아이뉴스24]

“이번에 장관에 지명된 분이 얼마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임명된 그 임혜숙을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했다. 임혜숙! 그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NST 이사장에 지난 1월21일 임명된 인물이었다. NST는 25개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NST 이사장에 임명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타자마자 노트북부터 꺼냈다. 핫스팟(Hot Spot)을 연결해 속보 처리에 나섰다. 버스가 흔들리면서 자판 두드리는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 휴대폰에 여러 사람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임혜숙 지명자가 그 임혜숙 맞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NST 이사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장관으

로 내정하는지, 무슨 일이에요?”

“여성이라서 그런지요?”

다들 궁금해하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친분이 있는 과학기술계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도착한 메시지였다. 일단 기사부터 쓰고 보자. 몰려오는 메시지에 답을 하기에는 시공간이 뒤틀리고 있었다. 1월21일 NST 이사장 임명→87일 동안 이사장 업무→4월16일 장관 내정... 일련의 시간적 흐름이 순간 뒤틀린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컴퓨터 자판이 춤을 추고 있었다. 오늘은 어느 날과 달리 버스조차 더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청와대가 뜬금없이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행간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정 직후 청와대 관련 브리핑이 이어졌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혜숙 내정자에 대해 ‘첫’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임혜숙 지명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전자공학회장을 지냈다. 전자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다. 학자로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었다.

속보 기사 제목은 ‘임혜숙, NST 이사장 임명 3개월 만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였다. 기사를 송고한 뒤 휴대폰에 도착한 수십 통의 관련 메시지에 “‘첫’ ‘여성’이란 키워드가 강조된 것 같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이어 돌아온 답신은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NST 이사장은 임기가 3년이다. 그마

저 임혜숙 이사장이 오기 전에 오랫동안 공식 상태였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이사장을 87일 만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을 두고 과기계는 ‘원칙을 깨 버렸다’ ‘과학을 버렸다’는 감정적 지적까지 내놓았다. 임혜숙 지명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납편 논문 내조’ ‘자녀동반 해외학회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누락’ ‘자녀 이중국적’ 등 열거조차 힘든 술한 의혹에 직면했다. 청와대가 객관적 관찰과 검증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의혹은 난무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관찰과 검증’을 통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과학은 관찰과 검증이 기본이다. 그가 자체 망원경을 만들어 목성을 관측한 것은 관찰과 검증이란 과학적 기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관찰과 검증 앞에 의혹은 있을 수 없다. ‘첫’ ‘여성’이란 키워드에 매몰된 나머지 청와대가 임혜숙 지명자에 대한 관찰과 검증에 실패한 것은 아니었을까.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정치권과 국민은 자진 사퇴, 지명철회 ‘0순위’로 임혜숙 지명자를 거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의혹이 많았고 무엇보다 ‘공정’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살아남았다. 과기정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에 임명되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는 이제 바뀌야 하고 여성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말에도 여전히 국민적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자녀동반 학회출장’은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의 상대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절대적인 것에 의문을 던졌다. 임혜숙 장관은 국제학회에 참석하면서 자녀동반 출장에 대해 “국제학회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보편성으로 잘라 말해버렸다. 국민은 그의 해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공정을 강조하는 문재인정권에서 이제 공정이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한다.

학회에 참석하면서 가족을 동반해 여러 차례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은 젊은이는 물론 국민 분노를 사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기는 그의 태도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여권의 인식도 ‘우리만의 공정’이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임 지명자를 두고 “학회에 참석할 때 가족 동반으로 가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임혜숙 지명자는 “그렇다”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출했다.

조국 사태에서부터 불거진 ‘공정 논란’이 국민의 가슴을 다시 한번 아프게 후벼팠다. 임혜숙 장관이 여러 차례 자녀와 함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정종오 기자]

께 다녀온 국제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이 비용을 부담했다. 국비로 다녀온 셈이다. 사적인 일이 아니다. 공적 업무에 사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자비로 가족을 동반했다고 하더라도.

국제 행사 등에서 상을 받았을 때 가족을 데려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며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반면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회를 주재하는 등의 일로 학회에 참석하면서 학회가 열리는 며칠 동안 가족과 동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찬스의 대물림’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이 사라지면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과기정통부를 이끄는 수장이라면 더욱 국민적



여러 논란에도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임명됐다. 임 장관이 지난 6월9일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민간 업체 주도로 뉴스페이스를 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학회에 누군가를 데려간다면 그 대상은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공정하게 선발해 데려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공정이자 균등이자 공평이다.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상식이고 자연스럽다.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을 빛내는 것이 ‘진정한 맛이자 멋’이다. 굳이 기관장이 되고 장관이 되려고 ‘연구자의 가치’를 내팽개쳐 버리는 현실은 슬프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정치가 과학을 바보로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떨림과 울림’이란 책에서 “우주의 모든 것은 떨림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존재는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 떨림이 우리에게 다가와 울림으로 반응할 때 우주는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임혜숙 장관 혼자 떨고 그 떨림에 국민이 ‘울림’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임혜숙 장관의 여러 떨림은 국민에게 울림으로 다가서지 못했다.

임혜숙 장관은 자신의 ‘떨림’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 ‘울림’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장관이 된 이후에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다짐했을까. 그 과정이 어떠한든 우선 권력을 잡아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자만심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 2021년 4월16일, 시간과 공간의 뒤틀림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은 ‘블랙홀’이었다. 🌪